동일본대지진 현지지원위원회

주여, 동일본대지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10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적 없었던 큰 흔들림, 그리고 해일로 인해 너무나도 소중한 15,899 명<sup>1</sup>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아직까지 행방불명이 된 이들도 2,526 명<sup>2</sup>이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도 해일과 원전사고로 인해 피난을 강요당하고 있는 41,781 명<sup>3</sup>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0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씻을 수 없는 공포와 불안,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와 평안을 주소서.

재해지역에서는 둑을 쌓아올린 주택정비, 방파제와 제방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편으론 주민의 생활과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공동체는 분열되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건계획의 지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 부흥공영주택에 살면서도 일가친척없이 고독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과소화가 진행된 부흥단지도 있습니다. 주여, 아직도 괴로운 환경속에서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노력조자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소서.

원전사고로 인해 후쿠시마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때 확산된 방사성물질, 계속해서 고이고 있는 오염수는 생명과 생계, 주변지역의 농업과 어업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원전의 폐로작업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야기현의 오나가와쵸우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는 원전 재가동의 파도가 일어나고, 게다가 원전폐기물 최종처리장의 선정에 있어서도 혼란과 분단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책임을 느끼거나 목소리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주여,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지금까지의 재해지역 지원활동에 당신의 보호하심와 인도하심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10 년전, 그 현장의 혼란과 불안 가운데 당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sup>1 2021</sup> 년 2 월현재, 가호쿠신보(河北新報)

<sup>2 2021</sup> 년 2 월현재, 가호쿠신보(河北新報)

<sup>&</sup>lt;sup>3</sup> 2021 년 1월 13 일현재, 부흥청 홈페이지, 그 중에 2 만 8,959 명은 후쿠시마현에서 현외로 피난한 자

그러나 그러한 때야말로 당신은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을 바라보시고 함께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해지역 지원활동이 재해지역에 있는 교회만의 사명으로써가 아닌, 전국각지와 해외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 지원에 의해 지금도 지해지역의 사람들과 교제가 지속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날로부터 10 년이 지난 지금, 구마모토나 오사카, 홋카이도의 지진, 각지의 호우재해,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확대등, 전국각지와 전세계에 일어나는 새로운 고난 중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한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행하는 교회의 사명을 든든하게 세워주소서.

주여, 언제나 당신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다이토미교회(미야기현)의 성도들이 모아주신 기도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 전도소의 여러분

동일본대지진 현지지원위원회 위원장 가나마루 마코토

「202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그로부터 10년을 기억하는 기도」의 송부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동일본대지진 발생으로부터 10 년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10 년간, 동일본대지진 현지지원위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지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지지원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여러분들과 현지의 상황과 현지의 생각, 그리고 현지의 기도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년 기도문을 작성하여 발송해 왔습니다. 올해도 「202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그로부터 10년을 기억하는 기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이토미교회(미야기현)의 성도들이기도문의 원안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는 그 원안을 토대로 협의하여 이 기도문을 완성하였습니다. 부디 교회, 전도소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긴장속에 1 년을 보냈지만, 2011 년 3 월에 발령된 원자력긴급사태선언이 지금도 해제되지 않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과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1 년 2 월 13 일 23 시 8 분경에는, 진도 6 강의 후쿠시마 해안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이라는데,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0 년을 떠올리는 시기에 있었던 큰 지진이었던 만큼 정신적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10 년전의 경험으로 또다시 가까운 시일내에 동일본대지진 레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불안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여러분도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지 교회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1 년 3 월 20 일(토) 14 시부터 16 시까지 zoom 을 통해서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0 년, 기도와 심포지움」(현지지원위원회, 동북연합공동개최)을 실시합니다. 참가방법등의 안내문은 별지동봉하였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교회, 전도소의 걸음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안에서

## The Prayer of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March 11 2021

Lord, it is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he accident at Tokyo Electric Power Company's Fukushima No. 1 nuclear powerplant. Huge shakings, such that we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the tsunami took 15,899 lives<sup>1</sup>, and there are still 2,526 persons missing<sup>2</sup>. Additionally, there are still 41,781 who are forced to live in refuge due to the tsunami or the nuclear powerplant disaster<sup>3</sup>. 10 years after the great disaster, we are still overcome by the fear, anxiety, pain, and grief that it has brought. Lord, please give us comfort and peace.

In the disaster-stricken areas, construction work to raise the bank and build housings, seawalls and levees are progressing, but the ordinary lives of the residents and their relationships and communities have been severed, and it is not easy to repair them. Due to the delays in the reconstruction plans, many have left their homes and live elsewhere, while some life in public recovery housings but lonely without any relatives. Some recovery housing complexes are experiencing aging and depopulation. Lord, please give hope, and walk side by side with those who are striving to continue living, as well as those are waning in their efforts.

Fukushima has been greatly damaged by the nuclear disaster. The radioactive materials emitted at the time and the ongoing accumulating water pollution continue to impact the lives and welfare of the people. There is no progress with the decommissioning of the Onagawa nuclear powerplant, and yet Onagawa town of Miyagi Prefecture and many other areas across Japan are caught up in a new wave of reopening nuclear powerplants. There is also confusion and division concerning the selection of the final disposal site of nuclear waste. We have no paid enough attention to this or felt responsibility, and have been unable to make our voices hear. Lord, lead us so that we may not repeat this mistake, that we may not turn our eyes away from reality but stay alert.

Lord, we thank you for your protection and guidance in the work of supporting the disaster-stricken areas until now. 10 years ago, in the confusion and anxiety amid the disaster, we often lost sight of your presence. We thank you that, in spite of that, you kept your eyes on us and stayed with us in those moments. We also thank you that the work of supporting the disaster-stricken areas remains not just the mission of the churches in those areas, but receives prayer and support from those who share our hearts around the country and abroad, which enables us to carry on our fellowship with those in the disaster-stricken areas.

10 years from the disaster, there have been earthquakes and flood disasters in Kumamoto, Osaka, Hokkaido and many other areas, and now COVID-19 has spread across the globe. Help us to turn our hearts toward those who suffer under new hardships all across Japan and the world, and make strong as we walk in the church's mission to be salt of the earth and light of the world. Lord, help us to always walk the path you have shown. May your Name be ever praised. Amen.

(This prayer was originally created by Taitomi Christian Church in Miyagi Prefecture, which the Committee finalized after discussion.)

<sup>&</sup>lt;sup>1</sup> As of February 2021, *Kahoku Shimpo*.

<sup>&</sup>lt;sup>2</sup> As of February 2021, *Kahoku Shimpo*.

<sup>&</sup>lt;sup>3</sup> As of January 13, 2021, Homepage of the Reconstruction Agency. Out of these, 28,959 are from Fukushima prefecture living elsewher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Local Support Committee
Chairperson: Makoto Kanamaru

About "March 11 2021, Prayer of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e praise the name of the Lord.

It is almost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e thank all of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who have remembered the work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Local Support Committee over the past 10 years, prayed for us, and continue to support us today. At the local support committee, we have annually sent out words of prayer with the desire to share with all those around the country about the situation, the thoughts, and the prayers of the local people.

This year, too, we have created "March 11 2021, Prayer of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is time, members of Taitomi Christian Church (Miyagi Prefecture) provided us with the original prayer. The Committee had discussions based on the original, and completed the final words. If you could share this prayer with your churches and missionary stations and pray with us, it would be much appreciated.

Amid the COVID-19 crisis, we have had a tense year, but we must not forget that the Declaration of Nuclear Emergency Situation announced in March 2011 has not yet been lifted. Fear of contamination and health hazards due to radioactive material continues. We must stay alert and join together in prayer.

Furthermore, at 23:08 on February 13, 2021, an earthquake measuring upper-6 on the Japanese seismic scale occurred off the coast of Fukushima. It has been reported that this earthquake is an aftershock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by which we were shocked that the disaster is still ongoing. With such a large earthquake occurring just as we were contemplating 10 year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 emotional damage is measureless. From our experiences 10 years ago, we live with anxiety that an earthquake of the same magnitude as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may occur sometime soon.

Please pray for the Lord's protection. And as you pray, please renew the discussion with your church members and your own family as to how you would act in the event of earthquakes and other disasters.

From Saturday March 20, 2012, from 2 pm to 4 pm, we will use Zoom to run "Prayer and Symposium of 10 years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jointly hosted by the Local Support Committee and the Tohoku Association). We have included a separate letter detailing how to participate, so please have look through it.

Lastly, we send heartfelt prayers for the Lord's rich blessing and grace over the walk of your church/missionary station, and that you from the depths of our hearts for all your support.

In the Lord

## 2021年3月11日 東日本大震災から10年を数えての祈り

東日本大震災現地支援委員会

主よ、東日本大震災、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から 10 年が経ちます。

これまで私たちが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大きな揺れ、そして津波によって、かけがえのない 15,899 人 $^1$ の命が失われ、いまだに行方不明となられている方が 2,526 人 $^2$ います。更にいまだに津波や原発事故によって避難を強いられている方は 41,781 人 $^3$ います。そして 10 年経った今もそのぬぐえない恐怖と不安、痛み悲しみがあります。主よ、慰めと平安をあたえてください。

被災地では、かさ上げをともなった住宅整備、防潮堤や堤防建設工事は進んでいますが、一方で住民の方の生活や人とのつながり、コミュニティーは分断され、それを元に戻すこと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再建計画の遅れから地元を離れて生活の場を移した方々、復興公営住宅に住んでも身寄りがなくなり寂しく暮らしている方々がおられます。また、高齢化で過疎化が進む復興団地もあります。主よ、まだまだ辛い環境の中で苦しみ、頑張って生きている人々、そして頑張ることのできない人々に希望をあたえ、寄り添い歩んでください。

原発事故によって福島は大きな被害を受け続けています。その時に拡散された放射性物質、溜まり続けている汚染水はいのちとくらし、近県の農業や漁業にも影響をあたえ続けています。原発の廃炉作業は先が見えず、それにもかかわらず宮城県女川町をはじめ日本の各地では原発再稼働の波がおこり、更には原発廃棄物最終処分場の選定においても混乱や分断が起ころうとしています。そのことに対して私たちはあまり関心を持たず責任を感じることもなく、声を上げることも出来ていません。

主よ、この過ちを繰り返すことのないように、この現実から目をそらさず目を覚ましていられ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主よ、これまでの被災地支援の働きにあなたの守りと導きがあ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10年前、あの現場の混乱と不安の中で、あなたの存在を見失ってしまう時もありました。しかし、そのような時にこそあなたは私たち一人ひとりに目を留め共に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そして、被災地支援の活動は被災地にある教会だけの使命ではなく、全国各地や海外の同じ思いを持った方々の祈りと支援によって、今でも被災地の方々との交わりを続けられ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す。

あの日から 10 年を経過した今、熊本や大阪、北海道の地震、各地の豪雨災害、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など、全国各地、また世界で起こる新たな苦難の中で痛む人たちに心を留め、あらためて地の塩、世の光として歩む教会の使命を確かなものとしてください。

主よ、いつもあなたの示された道を歩む者とさせてください。

あなたの御名が崇められますように。アーメン

※この祈りは、大富キリスト教会(宮城県)の皆さんが持ち寄った祈りをもとに、委員会で話し合って作成されました。

<sup>12021</sup>年2月現在。河北新報。

<sup>22021</sup>年2月現在。河北新報。

<sup>32021</sup>年1月13日現在。復興庁ホームページ。このうち、2万8,959人は福島県から県外への避難者。

東日本大震災 現地支援委員会 委員長 金丸 真

## 「2021 年 3 月 11 日 東日本大震災から 10 年を数えての祈り」の送付について

主の御名を讃美いたします。

東日本大震災発生から10年を数えようとしています。この10年間、東日本大震災現地支援委員会の働きを覚えて祈ってくださり、そして、現在も支えてくださっている皆様に、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現地支援委員会では、ぜひ全国の皆様に現地の状況と、現地の思い、そして現地の祈りを共有していただきたいとの願いから、毎年祈りの言葉を作成して発送してきました。今年も「2021年3月11日東日本大震災から10年を数えての祈り」を作成しました。今回は、大富キリスト教会(宮城県)の方々が祈りの原案を作成してくださいました。委員会はその原案をもとに協議して、この祈りの言葉を完成させました。ぜひ教会・伝道所でお分かちいただいて、共にお祈りし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の中、緊張した一年を歩んできましたが、2011 年 3 月に発令された原子力緊急事態宣言は未だ解除されていないことも忘れてはいけません。これからも放射性物質による汚染と健康被害の恐れは続きます。私たちは引き続き目を覚ましつつ、祈りを合わせ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また、2021年2月13日23時08分頃には、震度6強の福島沖地震が発生しました。この地震は東日本大震災の余震であると言われており、震災が今も続いていることに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東日本大震災からの10年を思い巡らしている時期の大地震だっただけに、精神的なダメージは計り知れません。10年前の経験から、また近いうちに東日本大震災レベルの地震が発生するのではないかと不安な毎日を過ごしています。ぜひ主の守りがありますようにお祈りください。また、同時に、皆様もぜひもう一度、災害が起きた時にどのような行動を取ったらよいのかを教会やご家族などで話し合ってみてください。

なお、2021年3月20日(土)14時から16時まで、zoomを用いて「東日本大震災から10年 祈りとシンポジウム」(現地支援委員会・東北連合共催)を行います。参加方法などを掲載したご案内(別紙)を同封していますので、ご覧ください。

最後になりましたが、貴教会・伝道所の歩みの上に、主の祝福と恵みが豊かにありますように、心からお祈りしております。皆様のご支援に心から感謝して。

在主